



1군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는 이른 오후, 2군 선수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한 낮 열기로 달구어진 그라운드에 오른다. 14일 오후 1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와의 2군 경기에서 7회말 1사에서 유용목이 슬라이딩을 하며 3루타를 만들었고 있다.

프로야구 KIA 2군 선수들의 24시

광주고 농구 2관왕 넘본다

석종태·신재호 44득점 합작 … 송도고 제압

협회장기 남녀농구 오늘 무릉고와 패권 다툼

광주고 농구팀이 올 전국대회 2관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지난 우수고교초청대회(1월·여수) 우승 팀 광주고가 제34회 협회장기 전국남녀농구 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고는 13일 원주치악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준결승에서 강호 인천 송도고를 맞아 석종태(2년·센터)와 신재호(3년·가드)의 44득점 합작에 힘입어 87-83(19-27, 22-17, 22-13, 24-26)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날 승부처는 역전극을 펼쳤던 3쿼터. 몸이 덜 풀렸는지 1쿼터에서 19-27로 뒤진채 불안한 출발을 보인 광주고는 2쿼터에서 끈질긴 추격으로 41-44, 3점차까지 따라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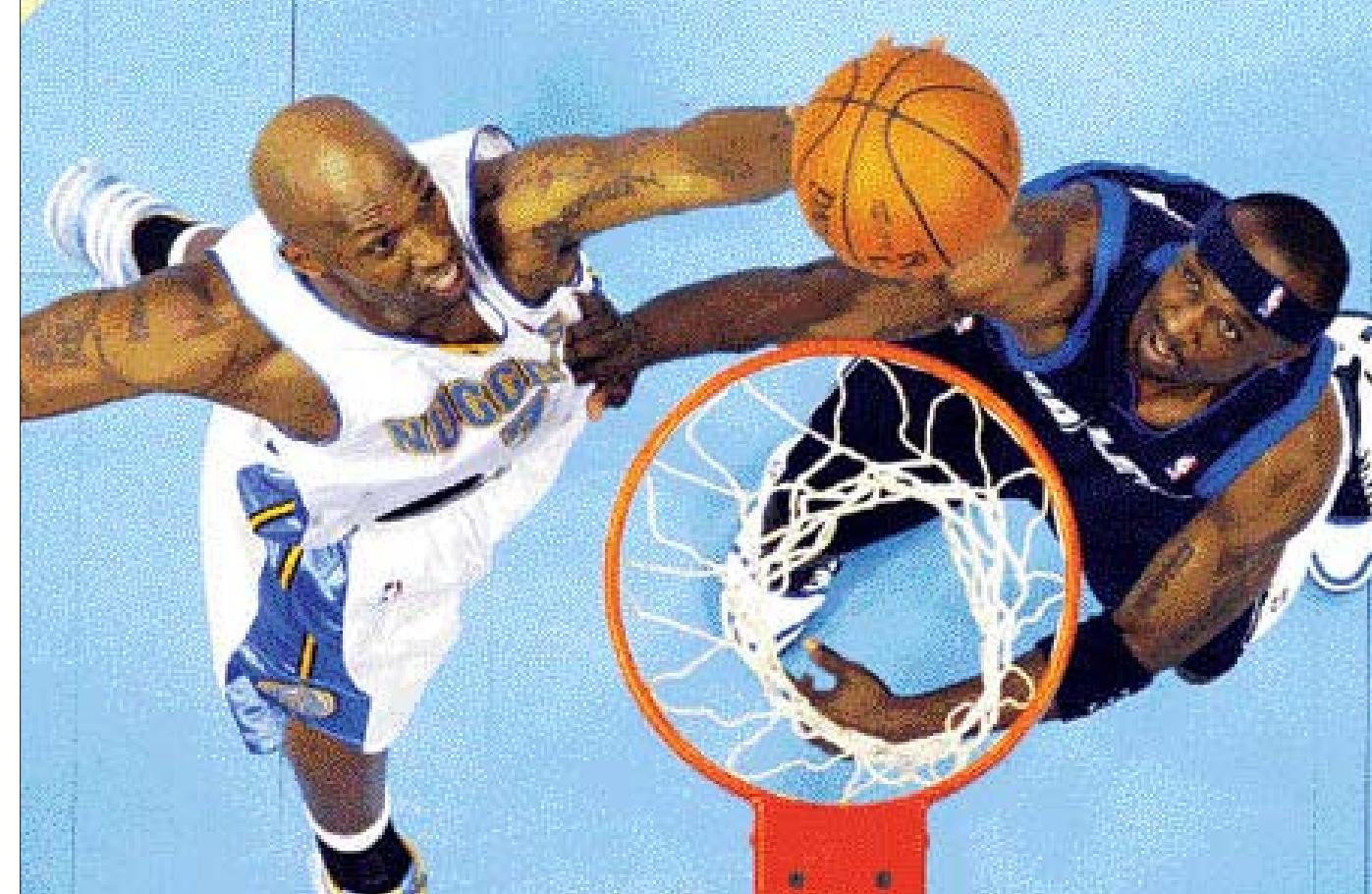
정상 컨디션을 되찾은 광주고는 3쿼터 들어 수비를 강화하고 상대 실책을 유도하면서 63-57로 전세를 뒤집고 승기를 잡았다. 특히 신장 196cm의 석종태의 리바운드에 의한 속공 연결을 신재호·허경부(3년·가드)·서기업(3년·포드)이 골로 성공시키면서 상대의 기세를 꺾은게 주효했다.

상승세를 탄 광주고는 4쿼터에서도 리드를 빼앗기지 않고 차분하게 경기를 치르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날 경기는 주전들의 고른 활약이 돋보였다. 큰 키로 끌 밀을 장악한 석종태가 14리바운드·21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주도했다. 신재호도 23득점·2도움·2 가로채 기로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14득점을 기록한 서기업은 3점 슛을 무려 4개나 성공하며 팀공격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또한 허경부도 18득점·4리바운드·2 가로채기로 결승 진출에 한 몫했다.

광주고는 15일 오후 3시30분 여수전자화 학고를 82-74로 꺾고 결승에 오른 울산 무릉고와 대회 패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친다.

/서원기자 swseo@kwangju.co.kr



막을테면 막아라

14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펙시센터에서 열린 NBA 4강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덴버 너기츠의 가드 천시 벌롭스(왼쪽)가 슛을 시도하자 댈러스 매버릭스의 제이슨 테리가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미 “性대결 계속하겠다”

남자대회 출전 포기 안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위성미(20·나이키골프·사진)가 아직도 남자대회에 출전하는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LPGA 투어 사이에이스 클래식에 출전하기 위해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에 있는 위성미는 14일(한국시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남자대회 출전이 결코 이루기 쉬운 목표는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 목표가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고 더 강한 선수로 만들어 준다”고 말했다.

폭발적인 장타를 앞세워 13세 때부터 세계골프팬들의 관심을 끈 위성미는 그동안

여러차례 초청선수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등 남자대회에 출전했지만 성적을 내지 못해 마파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LPGA 투어 정식 멤버로 여자대회에만 전념하고 있는 위성미는 아직까지 우승없이 삼금 팽창 22위에 올라있다.

위성미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 우승이 가까워졌다고 느낀다. 믿음을 갖고 경기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PGA 투어의 1인자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위성미는 우리와 다른 현재의 길을 걸어왔고 향상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 뒤 “하지만 나는 LPGA 투어에서 내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남자대회에 출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산 베어스 애이스로 일본프로야구에 진출한 오른손 투수 다니엘 리오스가 지난해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일본 무대에서 퇴출당한 사실이 이번 결정에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 구단은 해마다 외국인 선수와 계약하면서 협약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외국인 선수들이 완강히 거부해 약물 복용 여부를 알 방법이 없었다.

한편 KBO는 약물 검사에 등록된 선수들의 숫자도 현재 팀당 3명씩에서 최소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BO 관계자는 “올해는 도핑테스트를 2~3회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타고투자 현상이 유독 두드러져 홈런도 양산됐기에 조사 대상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기량이 급성장한 선수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올라간다, 기다려라”

이재주·김종국·서재웅·한기주 등 재활 몸부림

오전 9시부터 훈련 … 1주일 3회이상 야간 특훈

4강 싸움을 벌이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대전에 이어 문화으로의 원정 6연전을 떠났다. 하지만 오전 9시 무등경기장에서는 또 다른 KIA 선수단의 치열한 하루가 시작된다.

12일부터 KIA 2군이 한화, 히어로즈와의 홈 6연전을 치르게 되면서 무등경기장 떠나온 여전히 분주하다.

10여분 거리의 구단 속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도보나 자전거로 경기장에 출근한다.

한화와의 경기가 있던 14일, 오전 연습 후 이른 점심을 치킨 선수들이 오후 1시, 경기 위해 다시 그라운드 위에 올랐다.

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유니폼이 금세 땅으로 헹뻑 젖지만 부지런한 플레이어는 계속됐다.

열악한 훈련장이기는 하지만 함평에 있는 2군 경기장에 비하면 무등경기장은 최상의 구장이다. 중·고 야구 경기 있는 날이면 선수단은 함평으로 이동해 경기를 치려야 하지만 이번주에는 아마 경기가 없어 2군 선수들이 모처럼 무등경기장을 찾았다.

고우석이 선발로 나선 14일 경기에는 김종국·최경환·이재주가 나란히 2,3,4번으로 출전했다. 최경환은 좌익수, 이재주는 지명 타자로 나섰다. ‘수비의 달’ 김종국은 내야의 어린 선수들이 2루와 유격수에서 수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3루로 배치됐다.

컨트롤을 난조로 12일 2군에 내려온 좌완 김영수도 8회부터 마운드에 올라 제구력 점검에 들어가는 등 익숙한 얼굴들도 곳곳에 눈에 띈다.

경기장 안쪽 웨이트 장과 트레이닝실에는 재활중인 이용규, 서재웅, 한기주가 자리잡았다.

5회가 넘어서자 라인업이 요동친다.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경기에 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늘 경기장에 1등으로 출석하는 부지런한 신인 유승룡에서부터 매서운 스윙으로 마무리 캠프때 코칭 스태프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신고선수 배경수에 이르기까지 14일 현재 2군에 등록된 선수는 42명이나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석에라도 들어서기 위해 방망이를 휘두르며 기다리는 선수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화려한 부활 꿈꾸며…

복승아빠 골절 7월 복귀위해 재활 한창

마음 바쁜 이용규의 독한 재활이 한창이다.

4월 7일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편스 수비 중 복승아빠 골절을 당했던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이용규(사진)가 복귀를 위해 이를 악물고 있다.

뼈 고정 수술 이후 서울읍에 머물며 치료를 해왔던 이용규는 지난 5일 무등경기장에 돌아와 본격적인 재활 일정에 들어갔다. 광주에 오기 전 갑스를 풀었던 이용규는 며칠 전 보호대까지 벗어던지며 재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와의 2군경기 있던 14일 오후, 무등경기장 웨이트 장 한쪽에서 이용규가 뚝뚝히 밭목 강화 운동을 하고 있었다. 팔꿈치와 허리 통증으로 같이 재활군 신세가 된 서재웅과 한기주가 일찌감치 일정을 마치고 짐을 꾸리는 동안 지켜보는 이 없이도 이용규의 움직임은 계속됐다.

3주 동안 김스를 하면서 한 눈에 보기에도 오른쪽 종아리가 아팠다. 그만큼



이번에 골절부위 고정 수술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오른 발목의 뱃조각도 제거했고, 인대도 순신했다. 그래서 이용규의 오른쪽 발목에는 3개의 커다란 흉터가 나왔다. 수술이 커지면서 복귀 시점이 조금 늦춰졌다.

관중석에서 또 TV 앞에서 매일 팀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날쌘돌이’ 이용규의 독한 재활이 화려한 여름을 그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